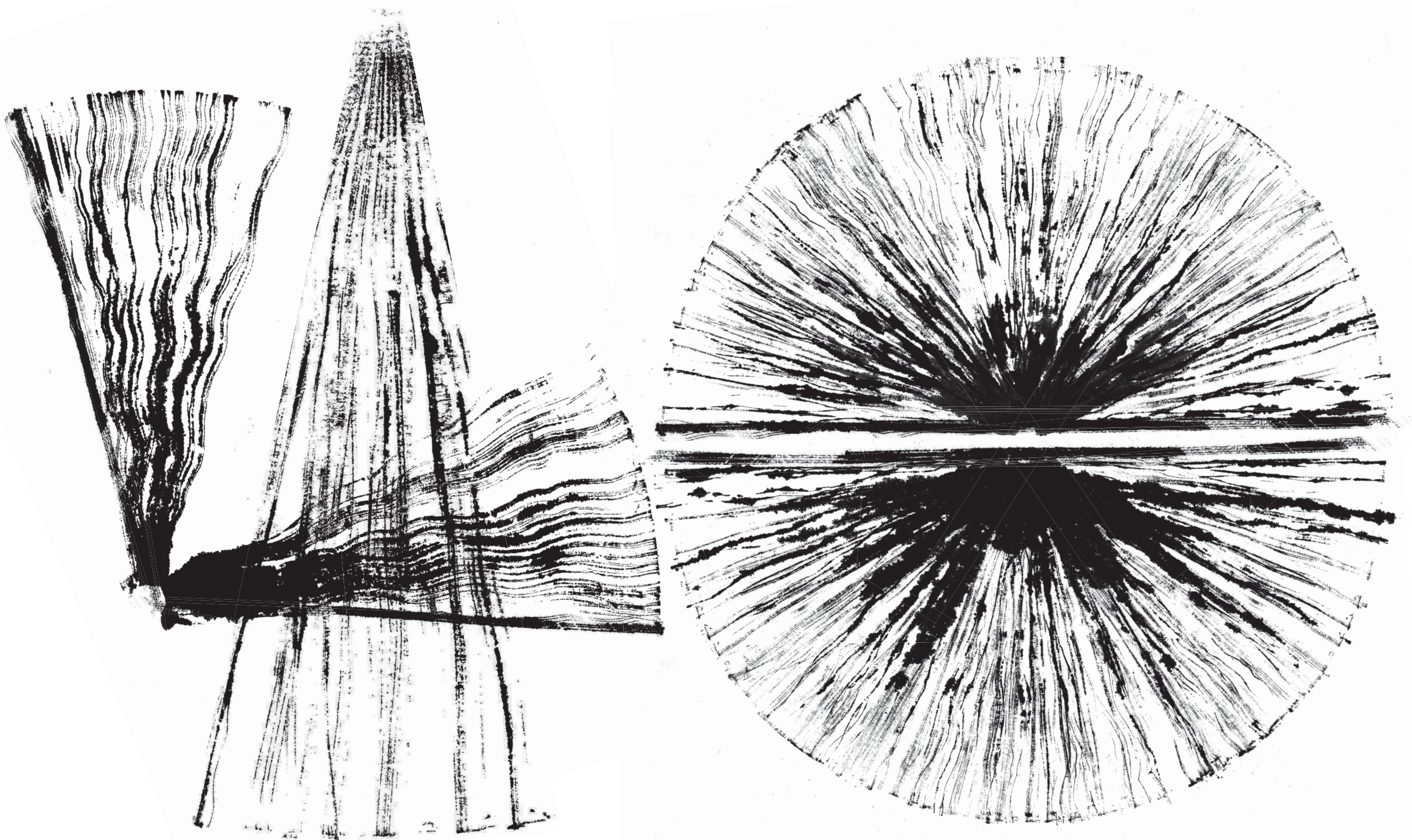


깊이와 품격으로 사랑 받는 잡지 예향이
창간 40주년을 맞이합니다.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
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
예향은 초심을 잃지 않고,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
소통의 문화플랫폼이 되겠습니다.

- 광주일보가 만드는 고품격문화예술매거진
- 40년의 역사, 통권348(10월호 기준)의 저력
- 깊이와 품격으로 사랑받는 잡지
- 독자들이 열독하는 매력적인 콘텐츠
-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매거진
- 1984년 10월 창간
- 국내 다수 우수잡지상 수상
- 지역문화예술잡지 최초 통권 300호(2020년 10월) 이상 발행
- 한국잡지협회선정 '2021-2024년도 우수콘텐츠잡지'



예향
藝鄉

40년의 여정 —

함께 걸어갈 길

Since. 1984. 10.